

# HIF월간 산업 이슈(04월)

## Monthly Industrial Issue

### 업종별 주요 이슈

#### 음료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음료 산업 원가를 상승 우려

- 향후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내 음료 기업들의 원가를 상승이 예상. 다만, 소재·가공식품 기업 간 영향 차별화 전망
- 곡물가격 상승 시 1차 소재식품 기업의 마진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는 반면, 제품가격 인상 러쉬 중인 2차 가공식품 기업은 영향이 작은 편

#### 철강 탄소중립 시대, 철강산업의 환경비용 현실화 가능성 점증

-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의 트렌드 확산 하에 환경비용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철강산업의 환경비용 리스크 현실화 우려
- 향후 환경비용 발생 시 국내 철강기업의 내수·수출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철·제강·제련을 담당하는 상공정 고로사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

#### 반도체 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 본격화

-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긴급 대책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삼성 등 역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게 투자를 요청하였으며, 인텔이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책에 힘입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역내 생산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음
- 향후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의 공급 과잉이 대두되어 수익성 악화도 우려됨

#### 이차전지 유럽 등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지역화 현상 심화

- 유럽은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유럽 내 스타트업, 자동차OEM 및 해외 배터리 기업 등의 공장 건설 등이 활발
- 유럽 자동차 OEM 등의 배터리 조달전략 변화 및 경쟁 심화 등은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요 기업의 수요 확보 전략 및 대응방안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

### 건설업 건설산업의 구조변화 본격화

- 그 동안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오던 건설업종간 업역 분리 제도가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
-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역 진출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건설사들의 대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중소 전문건설사들의 퇴출이 불가피해 여신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전망

### 유통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과점화 가능성 대두

-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플랫폼 사업을 확대 중인 쿠팡, 협업을 통해 이커머스 경쟁력을 강화 중인 네이버, 점유율 3위 이베이코리아 인수 업체 등 3사의 이커머스 시장 과점화 가능성 대두
- 상위 3사의 과점 구도가 고착화될 경우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중하위권 업체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과 함께 최근 이커머스 업체의 상장 및 M&A 활성화를 고려한 영업 기회 모색이 필요

#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가전·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 업종별 주요 이슈

음식료 :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음식료 기업 원가율 상승 우려

철강 : 탄소중립 시대, 철강산업의 환경비용 현실화 가능성 점중

반도체 : 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 본격화

이차전지 : 유럽 등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지역화 현상 심화

건설 : 건설산업의 구조변화 본격화

종합유통 :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과점화 가능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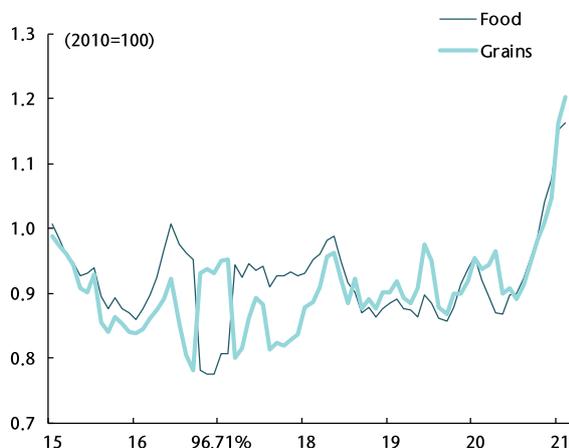
### C10. 음식료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음식료 기업의 원가율 상승 우려

※ **Summary** : 코로나19발 공급망 충격으로 상승 전환한 국제 곡물가격이 2021년 들어서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중국의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유지 중. 향후 국제 곡물시장 내 수급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내 음식료 기업의 원가율 상승이 우려되며, 소재 · 가공식품 기업 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 **Comment** : 1차 소재식품 기업의 마진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제품가격 인상 러쉬 중인 2차 가공식품 기업은 원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작은 편이며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에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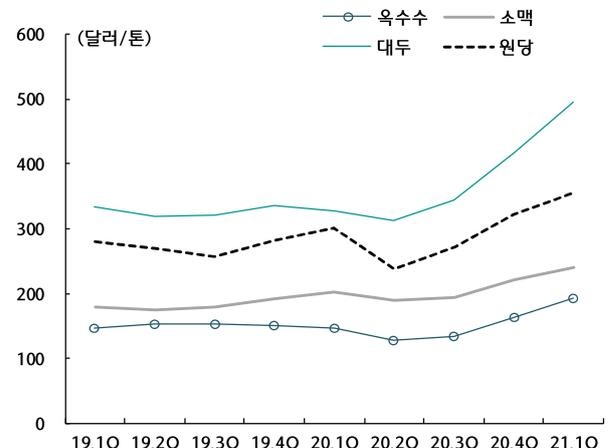
- **코로나19발 공급망 충격으로 상승 전환한 국제 곡물가격은 2021년 들어서도 작황 부진, 중국의 수입 확대 등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되며 강세를 유지**
  - 2020년 팬데믹 여파로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생산 및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년간 안정 추세를 보여 온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 전환
  - 2021년 들어서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중국의 수입 확대 등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지속 중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곡물가격지수가 '20년 6월부터 급등하여 '21년 2월까지 약 26.5% 상승
  - 특히 세계 최대 곡물 생산지인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남미, 호주 등의 작황이 좋지 않아 국제 곡물(옥수수, 대두, 밀 등) 선물가격이 2013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
    - 최근 6개월(2월 말 기준) 동안 주요 곡물별 선물가격 상승률 : 옥수수 58%, 대두 49%, 밀 16% 등

그림01 | 국제 식품 및 곡물 가격 추이



주 : world bank 가격 지수 기준  
자료 : Korea PDS

그림02 | 곡물 종류별 선물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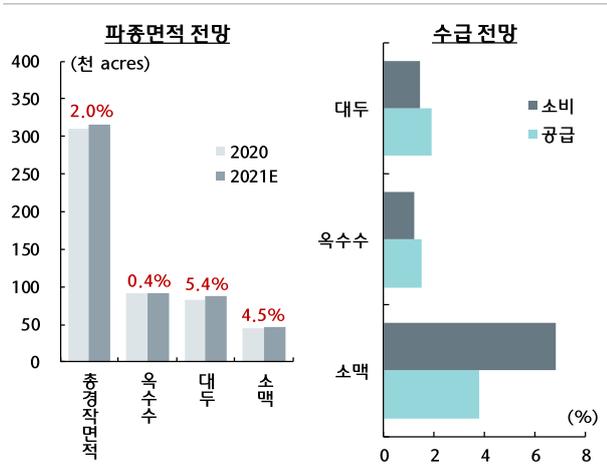
■ 향후 국제 곡물시장 내 수급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가능

- 향후 국제 곡물가격은 라니냐 등의 이상기후 문제에 따른 남미의 작황 상황, 美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 러시아의 수출세 부과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수준 이상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2020/2021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은 전년(2019/2020) 대비 각각 1.9%,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기말 재고량은 0.9% 정도 감소 전망
- 특히 세계 최대 곡물 생산 국가인 미국의 2021년 예상 경작면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이 가중
  - 美 농림부가 3월 말 발표한 “농작물 경작 계획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총 경작면적이 전년대비 2%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옥수수와 대두의 경작면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

■ 국제 곡물가격 급등 이후 원재료 투입 시차를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음식료 기업의 원가율 상승이 우려되며, 소재 · 가공식품 기업 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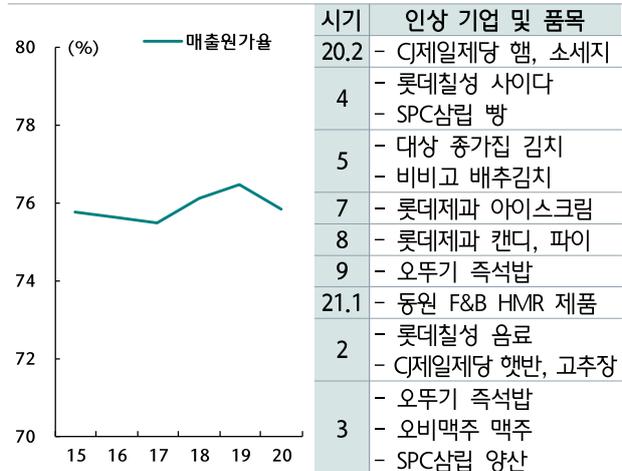
-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음식료 기업의 경우 곡물 수요 자급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 불가피
- 선물가격은 통상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음식료 기업의 수입단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곡물가격 급등분이 2021년 음식료 기업의 원가에 본격 반영될 전망
- 특히 1차 소재식품(제분 · 전분 · 전당 · 배합사료) 기업의 마진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별로 제품가격 인상 수준이 중요
- 반면 대대적인 제품가격 인상이 진행 중인 2차 가공식품(식료품 · 음료) 기업은 원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작은 편이며,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에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전망

그림03 | USDA의 곡물별 파종 면적 및 수급 전망



자료 : USDA

그림04 | 음식료 업체의 매출원가율 추이와 제품가격 인상



주 :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 \*100)은 식료품 제조 상장사 합산 기준  
자료 : Kis-Value, 업계자료 종합

## C24. 철강 탄소중립 시대, 철강산업의 환경비용 현실화 가능성 점검

※ **Summary** : 팬데믹 이후 환경정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환경비용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철강산업의 환경비용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 향후 환경비용 발생 시 국내 철강기업의 내수 · 수출 시장의 동반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제철 · 제강 · 제련을 담당하는 상공정 고로사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

※ **Comment** : 환경관세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공정(제철 · 제강 · 제련) 철강기업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되,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금융정책을 확대할 필요

### ■ 2021년 팬데믹 이후 환경정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환경비용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철강산업의 환경비용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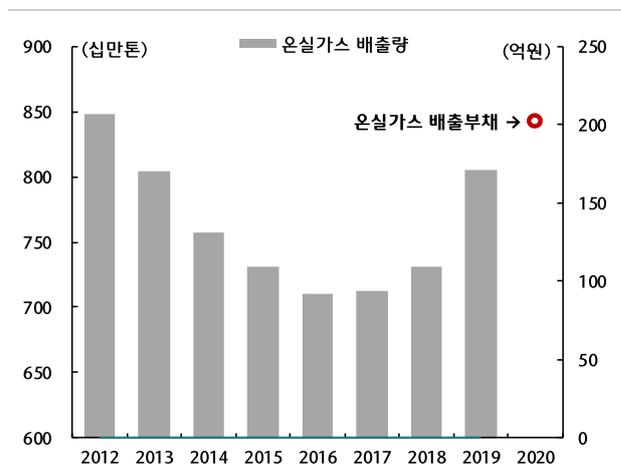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전례 없는 전염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선진국(미국, EU)을 중심으로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
  - 美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 복귀 · 탄소국경세 도입 등의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EU 또한 2019년 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21년 내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 중
-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를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산업 위주로 성장해온 한국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특히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산업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어 향후 환경 리스크 확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
  - POSCO가 '20년 사상 처음으로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인해 탄소배출권 매입채무 202억 원을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등 환경비용(탄소배출권 구입) 발생이 현실화

표01 |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비중

순위	산업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사용 (%)
1	금속	38.2	25.3
2	화학	19.0	26.9
3	정유	10.9	27.8
4	기타	93.0	96.2
5	전자장비	7.0	3.8
6	비금속광물	6.8	4.7
7	펄프 · 종이	3.2	2.2
8	음식료	3.0	2.1
9	자동차	2.4	1.6
10	섬유	1.8	1.2

주 : 2019년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그림05 | POSCO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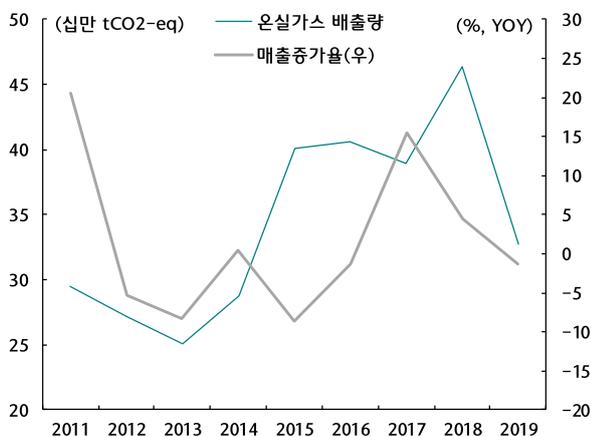


자료 : POSCO 사업보고서

■ 낮은 수요 변동 대응력으로 높은 환경 리스크를 부담하는 철강산업은 향후 환경비용 현실화 시 내수 · 수출 시장의 동반 타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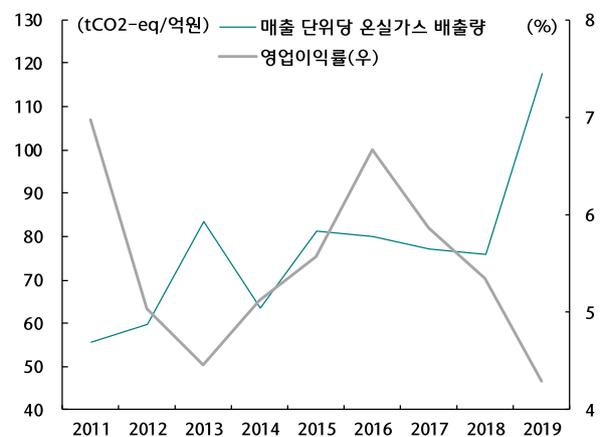
- 전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 하에 한국 정부가 2020년 그린뉴딜('20년 7월)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20년 12월)한 가운데, 향후 대내외적으로 환경비용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철강기업은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의 동반 타격 우려
- 내수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탄소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수출 시장에서는 탄소관세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
  - 2015년부터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고, 수년 내 탄소세(국내), 탄소관세(선진국 중심) 도입 예상
- 특히 철강산업은 중후장대한 공정 특성 상 섀다운이 불가능하여 수요 변동과 무관하게 고로를 계속 가동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
- 따라서 경기 하락 시 철강기업의 매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환경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더욱 가중되는 구조로 기업 실적(수익률)이 더욱 악화
  - 철강기업의 매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영업이익률이 음(-)의 상관관계
- 2021년 전 세계 철강산업은 수요산업 회복 기조 하에 안정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문제는 지속될 전망
  -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2020년 2.4% 감소한 전 세계 철강 수요는 2021년 4.1% 증가한 17억 9,5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다만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규모는 6억 톤을 초과(전년대비 1억 톤 가량 증가)하는 등 공급과잉 이슈가 지속
- 국내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자동차 · 가전 · 건설 등)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품목별 수급불균형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불안 요인이 상존

그림06 |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매출증가율



자료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07 | 철강산업 매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영업이익률



자료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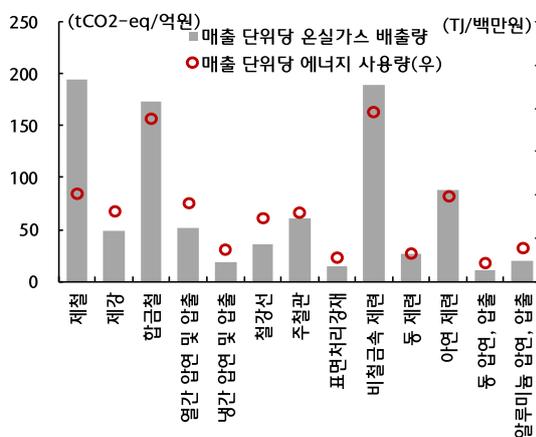
■ 특히 제철 · 제강 · 제련을 담당하는 상공정 고로사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

- 철강 세부업종별 · 기업별 환경 리스크를 살펴보면 제철 · 제강 · 제련을 담당하는 상공정 고로사를 중심으로 환경비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
  - POSCO, 현대제철, 고려아연, 에스엔엔씨, 영풍, 다비메탈은 (매출 단위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상위 10위 기업
- 특히 전사적 차원에서 친환경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중인 대형 고로사보다 장기 전략이 부재하고 인력 및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이 미흡한 제강, 합금철 중소 · 영세기업의 타격이 클 전망
  - POSCO, 현대제철은 탄소중립 제철소(수소환원제철) 건립, 미래차 소재 개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 철강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준비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금융그룹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공정(제철 · 제강 · 제련) 철강기업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되,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금융정책을 확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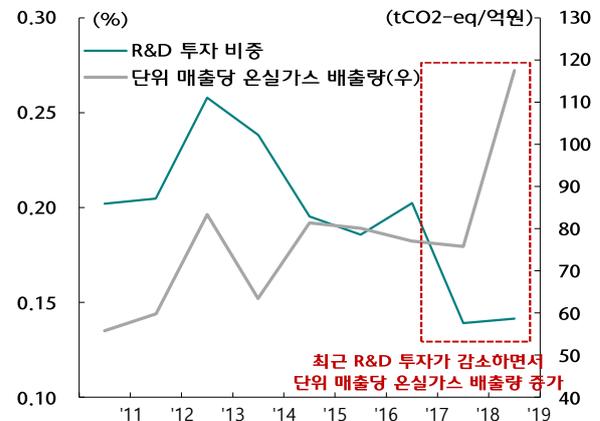
-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 강화, 탄소(관)세 도입 등의 환경 규제 확대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어 환경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탄소 다배출 철강업종(제철 · 제강 · 제련)을 모니터링할 필요
- 다만, 경영진의 탄소중립에 대한 태도(지속가능경영 보고서), R&D 투자 정책(신사업 투자 현황), 재무 상태에 따라 철강기업별로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 단위별로 차별화된 여신정책이 중요
-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정치적 ·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ESG 활동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그룹은 철강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 · 제공할 필요 

그림08 | 1차금속의 세부업종별 환경오염 지표 비교



주 : 2019년, 세계분류 산업 분류 기준  
 자료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09 | 철강기업의 R&D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량



주 : R&D 비중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며, 환경오염 지표는 매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26. 반도체 : 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 본격화

※ **Summary** : 바이든은 ‘반도체 긴급대책회의’를 직접 개최하며 자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예고함. 또한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는 등 미국 기업의 관련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음.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1차적 원인은 미·중 신기술 패권 경쟁과 반도체 품귀 현상에 있으며, 또한 각국의 반도체 독립으로 요동치는 세계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됨

※ **Comment** : 세계 반도체산업은 미국과 중국으로 이원화되고 한국에 대한 양자택일 압력도 본격화될 전망. 또한 미·중 경쟁으로 국내기업의 직간접적 피해와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 美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을 결집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 지원도 강화

-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 해결을 위해,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 및 GM 등 車제조업체에게 반도체 긴급대책회의 참여를 요청(‘21.04.12)
  - 주요 의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강화 로드맵’, ‘반도체 수급 불안 요인 점검’, ‘반도체 부품 제조 확보 법제화’, ‘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 등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 관련 주제 예상
  - 이번 회의는 美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자국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보유 중인 외국 기업(TSMC, 삼성전자)을 이례적으로 포함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반도체를 ‘전략적 안보 물자’로 정의하고 대대적인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
  - 앞서 바이든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전략적 안보 물자에 대해 공급망 현황 분석을 행정 명령으로 발동하였으며,(‘21.02), 이번 긴급대책 회의는 과거 행정 명령의 연장선상
  - 미국은 팡리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나, 생산 능력은 전세계 13%에 불과하여, 대대적인 자국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고하는데 지원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표02 | 美 반도체 긴급대책회의 핵심 의제 (‘21.04.12)

주제	세부 내용
역내 생산 능력 강화	- 미국내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 점검 - 해외 반도체 기업 적극적 M&A 추진 - 역내 생산 능력 개선 로드맵 마련
수급 불안 요인 점검	-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원인 분석 - 향후 위협 요인 점검(스트레스 테스트) - 첨단 부품 재고 확보 관련 법제화
반도체 생산 지원책	- 역내 신규 투자 시 세제·보조금 혜택 - 신규 공장 주변 인프라 개선 - 반도체 연구·생산 관련 고급 인력 양성

자료 : 언론자료 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03 | 반도체 생산 지원 정책(美)

지원 정책	세부 내용
자금 지원 (‘21.04)	- 반도체산업 관련 500억\$ 규모의 자금 지원 - 반도체 개발을 위한 국립과학재단 설립·지원에 별도 500억\$ 자금을 투입
CHIPS (‘20.11)	- 역내 반도체 투자 기업 인센티브(100억\$ 규모) -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시 세금 공제(40%) - 370억\$ 규모의 예산 계획 수립 중(‘21.02)
Foundries Act (‘20.07)	- 美 반도체 주도권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 (총 250억\$) - 설비 현대화에 150억\$, R&D 시설 구축 50억\$ - 국립과학재단 등 관련 연구소 지원 50억\$

자료 : 언론자료 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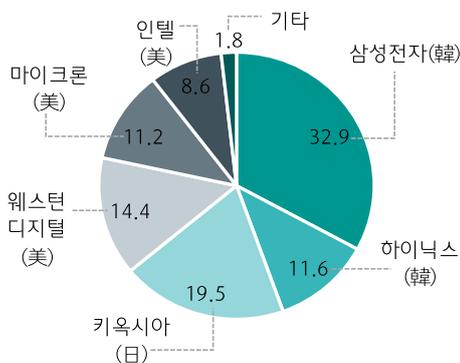
■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 위기 타개를 모색하며 미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적극 동참

- MS, Apple 등 핵심 고객 이탈과 기술력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은 역내 반도체 생산을 강조하는 미국과 EU를 배경삼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 활로를 모색 중
  - 종합반도체회사(IDM)인텔은 200억 달러(약22조원)를 투자하며 美 애리조나에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히고,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인 파운드리(Foundry) 진출을 공식화('21.03.24)
  - 인텔은 최근 MS, Apple 등 핵심 고객들이 반도체 자체 설계 방침을 밝히며 이탈하고, 생산 기술력에서도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열세를 보이며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음
- 인텔의 파운드리 진입은 산업 관점에서 타당성이 낮으나, 美 행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생산 지원 정책과 EU의 파운드리 유치 움직임에 고무된 것으로 판단됨
  - 파운드리의 주 고객인 팹리스 업체는 설계 유출 염려로 IDM 보다 순수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파운드리 기술력에서도 인텔은 TSMC, 삼성 대비 열세
  - 그러나 역내 반도체 생산을 강조하는 미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미국 내 팹리스 업체의 수요가 인텔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파운드리 유치를 희망하는 EU의 지원 가능성은

■ 또한 미국 기업들이 키옥시아 인수에 나서며 메모리 시장에서도 美 경쟁력 강화 움직임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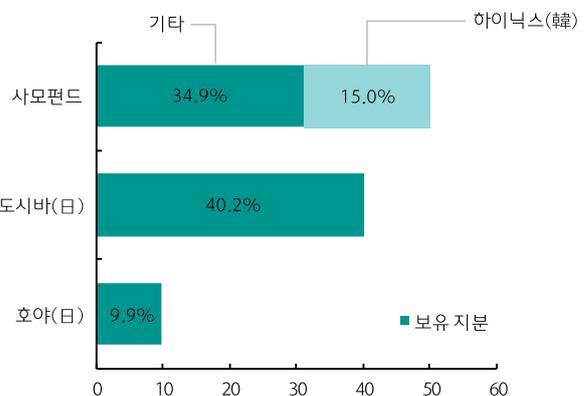
- 美기업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이 日낸드 기업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주도중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미국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 '20년 4분기 기준 세계 낸드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점유율은 총 34.2%이나, 미국 기업이 키옥시아를 인수하는 경우 점유율은 53.7%로 상승하여 한국 기업을 상회(44.5%)
- 美기업의 키옥시아 인수 역시 산업 관점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나, 美 정부의 지원책과 미일 간 반도체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수 가능성도 충분히
  - 키옥시아 지분 구조는 하이닉스가 참여중인 사모펀드와 도시바의 경쟁구도로 미국의 진입이 제한적이거나, 미·일간 반도체 동맹 실현 시 미국 기업의 일부 지분 인수도 가능할 전망

그림10 | 세계 낸드 시장점유율('20.4Q)



자료 : TrendForc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1 | 키옥시아 지분 구조(2021.1Q)



자료 : 언론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의 1차적 원인은 미·중 신기술 패권경쟁과 반도체 품귀 현상**

- **美** 바이든 대통령은 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있어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급부상 중인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견제하는데 있어서도 반도체가 핵심임을 인지
  - 바이든은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으로 규정하고, 반도체(못) 없이는 미래 신산업(편자) 역시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반도체를 통한 중국 첨단산업 규제’를 이어가며 중국의 핵심 전자 기업 화웨이와 SMIC, 하이실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 견제를 지속
- 또한 코로나 19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대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 시킴
  -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 자동차, 핸드폰 등 일부 전자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보임에 따라, 대다수 반도체 공급 업체는 서버, 노트북 등 언택트 수혜 산업으로 설비 투자를 집중
  -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 예상 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수요·공급 Gap 이 발생하고, 한파 등 자연재해로 공급이 더욱 위축되며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심화

■ **또한 각국 반도체 독립으로 요동치는 세계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

- 중국은 미국의 자국 첨단산업 규제 극복을 위해 반도체 굴기에 더욱 힘을 쏟고 있으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EU 역시 반도체 생산력 확보에 혈안
  -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강화하고, EU 역시 파운드리 유치와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자금을 조성하는 등 각국 반도체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
- 유기적 분업구조였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각국의 반도체 독립 움직임으로 급변중이며,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통해 세계 반도체 산업 주도를 추진
  - 기반도체 산업은 일본,EU(장비), 미국(설계), 한·대만(생산), 중국(소비)의 유기적 구조

표04 | 반도체 품귀 현상(산업별)

산업	현황
자동차	- 21년 2분기 글로벌 자동차 생산 160만대 감소 전망 -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EU,일본의 피해 집중 - 반도체 대란으로 EU, 일본 내 반도체 자급 목소리소
모바일	- 반도체 부족으로 아이폰 생산량 10% 감소(21.1Q) - 삼성 모바일 사업부는 반도체 관련 비상회의 상시화 - 모바일 AP칩 1위 업체 퀄컴에 주문 폭주 현상
가전	-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가전업계의 반도체 부족 심화 - 월풀 중국법인인 반도체 부족으로 25% 생산 차질 - 중국의 로밤 역시 반도체 부족으로 신제품 출시 지연

자료 : 언론 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05 | 세계 각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

지역/국가	반도체 자립 움직임
 EU	- 범EU 미래프로젝트(IPCEI)에서 반도체 자립 결의 - IPCEI는 5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 준비 - 독일은 이 프로젝트에 선제적 10억 유로 투입을 선언
 일본	- 반도체 생산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기구 신설 - 세계 1위 파운드리기업(臺) TSMC 연구소 유치
 중국	- 2025년까지 자급률 70%목표(중국제조 2025) - 자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2~5년까지 소득세 면제 - 향후 10년간 170조원 규모의 투자 지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세계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원화되고, 한국에 대한 양자택일 압력도 본격화될 전망

-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있어 大원칙 중 하나는 한국, EU, 일본 등 동맹국과의 생태계 조성에 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참여 요청 역시 가시화
  - 바이든은 중국의 공급망을 자국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중요 광물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21.02)
  -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공식 거론 ('21.04)
-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EU, 일본, 대만은 적극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전방위적 반도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시도
  - 이미 TSMC(臺)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미국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했으며, 인텔의 EU 파운드리 투자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아 EU·미국의 동맹도 가속화 될 전망
  -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양국 협력을 공식적으로 강조 ('21.04)

■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으로 국내 기업의 직간접적 피해와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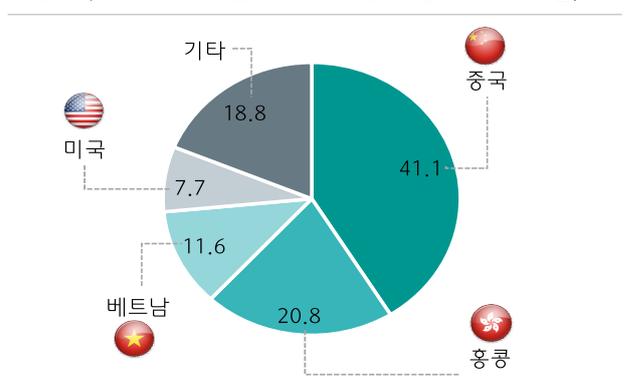
-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은 양국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보유중인 한국 기업에게 최악의 환경이며 두 지역의 상호보복 본격화시, 국내 기업의 직간접적 피해 불가피
  - 삼성은 중국과 미국에, 하이닉스는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보유중이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여파로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이 제한된 전례가 있음
-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자급 강화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인텔의 예와 같이 美반도체 기업은 자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타당성이 낮은 시장도 적극 진입 중이며, 미중·패권 경쟁은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반도체 중복 투자를 야기
  - 통상 반도체 설비투자부터 생산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은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국내기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有

표06 |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중 투자 현황

기업	미국 투자현황	중국 투자현황
삼성전자 	- 오스틴에 생산시설 보유 - 파운드리 생산 거점 - 2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 검토 중	- 시안 낸드플래시 - 시안 2공장 투자中 - 쑤저우 후공정 시설
하이닉스 	-	- 충칭 낸드플래시 - 우시 D램 - 중국 인텔 공장 인수

자료 : 언론 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2 |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현황 ('20년1~7월,%)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28. 이차전지 : 유럽 등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지역화 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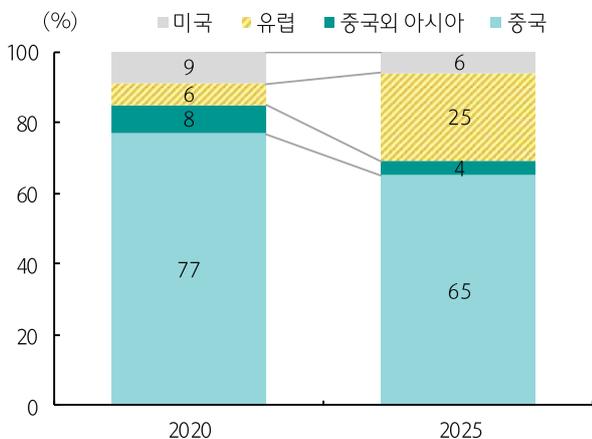
※ **Summary** : 유럽은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중요 부품인 배터리의 역외 의존도 감소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자체 생산을 확대할 계획. 현재 유럽 내 신규 배터리 진출기업 및 한·중 배터리 기업, 주요 자동차 기업 등의 배터리 생산시설 건설이 활발함. S&P에서는 세계 배터리 생산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에서 2025년 25%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Comment** : 유럽 자동차 OEM 등의 배터리 조달전략 변화 및 경쟁심화 등은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수요 확보 전략 및 대응방안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

#### ■ 유럽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 중

- EU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s)을 3천만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배터리의 90%를 역내에서 생산하고자 함
- 2017년 배터리 생산부터 유통, 재활용까지 전 밸류체인의 유럽 내 구축을 목적으로 EU 배터리 연합(EBA)이 만들어졌으며, 배터리 관련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 유럽의 전기차 보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세계 EV 판매 중 유럽이 44%를 기록하며 중국을 추월함. 다만 배터리의 역내 생산 비중은 6%에 불과
- 유럽은 미래차 혁신 주도 및 성장산업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배터리를 집중 육성중이며 S&P는 세계 배터리 생산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지원금은 61억 유로(약 8조 900억 원)에 이르며 관련 투자규모는 1년 사이 10배가 증가

그림13 | 세계 리튬 배터리 국가별 생산 점유율 전망



자료 : S&P Global

그림14 | 유럽 배터리 연합(EBA) 하 배터리 생태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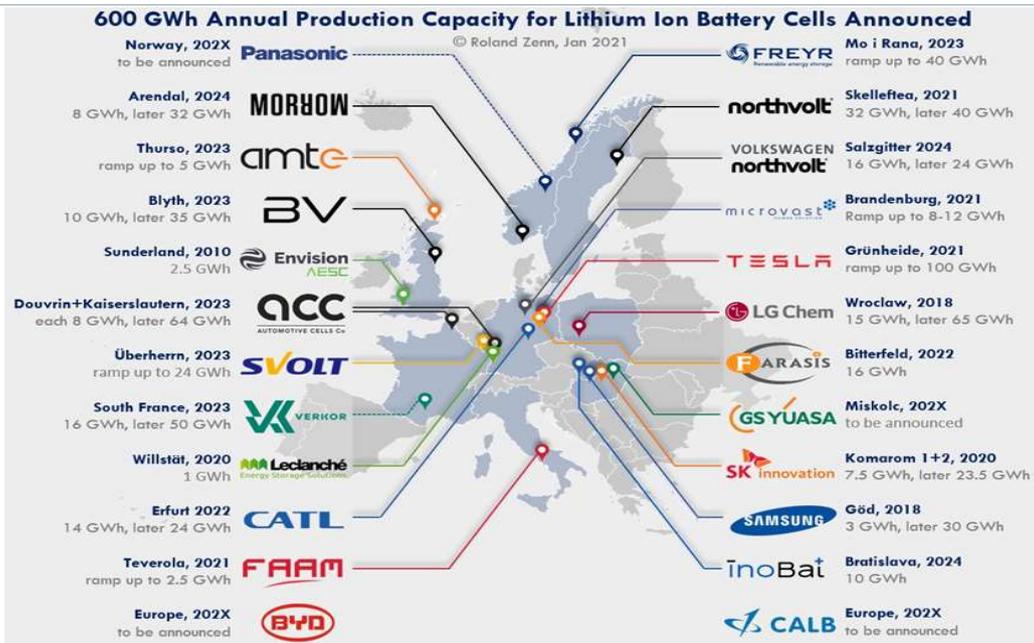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유럽 내 신규 배터리업체 및 해외 배터리업체들의 생산시설 계획 및 건설이 활발

- 유럽 배터리 연합(EBA)에 따르면, 유럽에서 25개의 배터리 프로젝트가 계획 및 건설 중이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500GWh 규모로 생산능력이 확대될 전망
- 테슬라는 올해 중순 가동 예정인 기가팩토리 베를린을 중심으로 '25년까지 100GWh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기업을 비롯해 CATL, SVolt, Farasis 등 중국 기업들도 유럽 내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 중
- 스웨덴 노스볼트, 영국 브리티시볼트, 프랑스 Verkor와 Saft, 노르웨이 Freyr, 슬로바키아 InoBat, 이탈리아 Italtovolt, 폭스바겐 등 역내 유럽업체 간 경쟁도 치열
  - 2016년 설립된 스웨덴 노스볼트는 폭스바겐, BMW와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EIB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스웨덴과 독일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 중
  - 배터리 스타트업 Britishvolt는 26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영국 최초 기가팩토리(2027년, 30GWh)를 건설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1단계 가동이 목표
  - Freyr는 노르웨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계획(2025년 43GWh)을 발표했으며, NYSE에 Alussa Energy Acquisition와 SPAC 상장('21.1)하여 투자자금을 조달
  - Italtovolt는 이탈리아 최초 기가팩토리(2024년 45GWh) 건설을 발표('21.2)
- 전통 자동차 허브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영국이 배터리 제조 기반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슬로바키아, 스웨덴, 폴란드 등이 '25년까지 새롭게 배터리 생산국에 합류할 전망

그림15 | 유럽 내 주요 기업의 배터리 생산시설 계획(2021.1월 기준)



자료 : Roland Zenn

■ 유럽 자동차 기업 중 전동화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중장기적으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여 조달할 계획

- 폭스바겐 그룹의 202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211% 늘어난 38만대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경쟁에서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예정
-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에서 40GWh급 기가팩토리 6곳을 구축하여 연간 24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
  - 스웨덴(2023), 독일(2025), 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 중 1곳(2026), 슬로바키아·체코 등 1곳(2027)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은 검토 중
- 폭스바겐의 신규 배터리(Unified cell)는 2023년부터 파트너사인 노스볼트를 통해 생산을 시작하며, 2025년 80GWh, 2030년 240GWh로 단계적 확대해 나갈 예정
- 신규 배터리의 폼팩터는 각형으로 통일하며 2030년까지 자사 전기차의 80%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07 | 유럽 주요 기업별 리튬 배터리 생산능력 전망(단위: GWh)

기업 및 생산시설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테슬라 독일	0	0	10	40	60	80	100
LG화학 폴란드	6	6	22	54	70	70	70
노스볼트	0	0	4	14	23	40	48
	독일	0	0	0	0	8	16
	스웨덴	0	0	4	14	23	32
Saft	0	0	0	0	12	24	32
	프랑스	0	0	0	0	16	16
	독일	0	0	0	0	8	16
삼성 SDI 헝가리	8	13	20	25	29	29	29
SK 이노베이션 헝가리	0	8	8	13	18	18	18
Verkor 프랑스	0	0	0	0	8	16	16
CATL 독일	0	0	1	10	14	14	14
SVolt 독일	0	0	0	0	3	12	12
Britishvolt UK	0	0	0	0	3	10	10
InoBat 슬로바키아	0	0	0	0	0	5	10
Farasis 독일	0	0	0	2	6	6	6
Envision AESC UK	2	2	2	2	2	2	2
MES 체코	0	0	1	1	1	1	1
<b>유럽 총계</b>	<b>16</b>	<b>28</b>	<b>68</b>	<b>159</b>	<b>248</b>	<b>327</b>	<b>368</b>

주: 2021년 2월 1일 발표 기준  
 자료 : S&P Global

-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고객사의 전략 변화 및 경쟁심화 등을 고려하여 정교한 수요 확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업체와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함**
  - 유럽은 전기차 확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핵심 시장으로 자국기업 보호주의가 강한 중국이나 전기차 전환이 더딘 미국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음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은 유럽시장 선제 대응 차원에서 배터리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
    - LG에너지솔루션: 4,300억 원을 투자, 폴란드 공장 확대계획(70GWh→100GWh) 발표('21.1)
    - SK이노베이션: 1.2조원을 투자, 헝가리에 연산 30GWh급 배터리 3공장 건설 발표('21.1)
    - 삼성SDI: 9,400억 원을 투자, 헝가리 공장 증설계획(약 15GWh급) 발표('21.2)
  - 그러나 주요 자동차 OEM들의 배터리 내재화 추진 및 유럽 신생기업들의 생산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 한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어 사업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화재 등으로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20년 이상 쌓은 기술력을 신규 업체들이 단기간에 따라오기는 쉽지 않겠으나, 유럽의 역내기업 육성정책 및 자동차 OEM의 전략 변화 등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시장지위가 약화될 가능성 존재
    - BNEF는 폭스바겐이 계획대로 내재화 진행 시, CATL에 이어 세계 2위 업체가 될 수 있다고 평가
  - 향후 배터리 성능 및 가격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며,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
- **유럽 규제 변화 및 경쟁 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수요 대응전략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
  - 유럽은 '24년부터 자동차 환경규제에 LCA(Life Cycle Assessment) 도입을 추진 중이며, 배터리 제조과정에서의 CO<sub>2</sub> 발생량이 제품 경쟁력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
    - LCA 평가는 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한 CO<sub>2</sub> 배출량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의 생성, 차량 제조, 운송, 판매, 폐기 등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한 CO<sub>2</sub> 발생량을 평가하여 규제하는 방법. 동일 전기차라 하더라도 제조국 및 사용국, 원료/부품 등에 따라 LCA상 CO<sub>2</sub> 배출량이 달라짐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원자재의 윤리적 수급, 배터리 탄소발자국 공개, 원료 재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2020.12)
    - 규제안에 따르면 '24년 7월부터 EV 배터리 등은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며 '26년부터는 발자국의 상한선을 정할 예정. '27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의 성분을 공개해야 하며, '30년부터는 코발트, 리튬 등 원료 일부를 재활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함
  -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주로 위치한 폴란드 등은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로 CO<sub>2</sub> 전주기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생산 측면에서 유럽 현지 생산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로컬 소싱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Freyr는 노르웨이의 풍부한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배터리 생산의 carbon intensity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파나소닉도 CO<sub>2</sub> 배출에서 유리한 노르웨이에 공장 건설을 추진 

## F. 건설업 : 건설산업의 구조변화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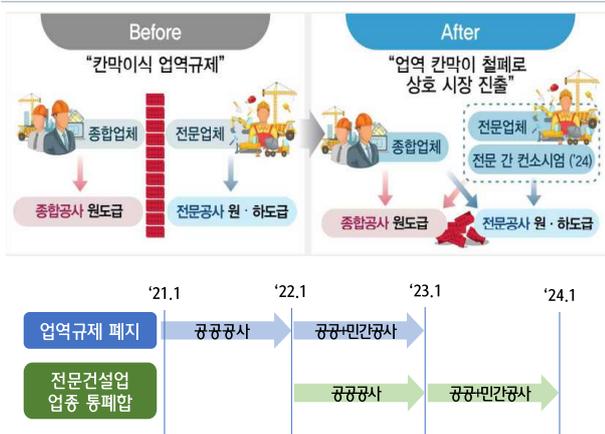
※ **Summary** : 그 동안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어 오던 건설업종간 업역분리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철폐되면서 건설산업의 구조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진출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대형화도 전망됨. 다만, 시장 신뢰가 증시되는 건설산업 특성상 대기업 건설업체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Comment** : 업역규제 철폐로 대형 전문건설업체는 성장의 계기가 되는 반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도태가 예상되므로 보다 면밀한 여신 관리가 필요함

### ■ 올해부터 공공 공사 업역규제 철폐되며 내년부터는 민간 공사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

- 건설업종을 종합건설업(5종), 전문건설업(29종)으로 세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18.12월) 업종간 칸막이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상호 업역에 진출이 가능
  - 기존에는 두가지 이상의 공종은 종합건설업체만, 단일 공종은 전문건설업체에만 도급
-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부응하고 건설사간 경쟁확대를 통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노사정 합의('18.7) 하에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올해부터 시행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12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중국, 인도 등과의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중
- 올해는 공공공사 발주에서 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가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업역규제 폐지가 민간공사로 확대 적용되며 전문건설업의 업종구분도 29종에서 14종으로 통합
- 업종간 상호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존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자본력,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양극화가 가중될 전망

그림16 | 건설업종간 칸막이 규제 철폐 내용 및 추진 일정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17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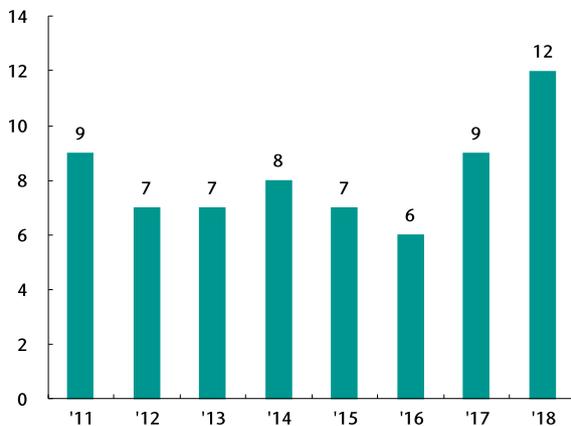
## ■ 분업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업역 분리 제도가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

- 종합건설업체는 직접시공을 금지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도급을 받아 시공을 진행하도록 해 업역간 안정적인 시장을 보장함으로써 분업 및 전문성 확보 유도
-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종합건설업체는 사업관리에 치중하게 되고 전문건설업체는 매출을 종합건설업체에 의존하면서 저가하도급 관행 등 고질적 문제 고착화
- 그 동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업역별, 기업 규모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연되다 건설혁신 노사정 선언('18.7월)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이 추진
  - 업역 구분 개선에 대한 노력은 '건설선진화전략('04년)', '3차 건설 진흥계획('04년)', '건설 선진화방안('09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합의에 실패

## ■ 건설산업 생산구조 노후화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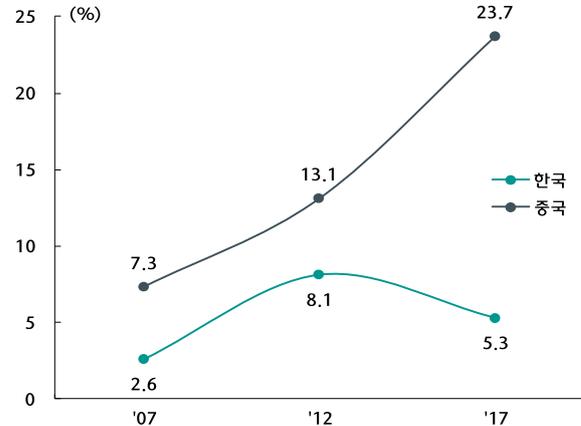
- 불합리한 업역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낮은 노동 생산성, 시공능력 혁신 지연 등 기존 관행의 한계점으로 산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하락
- 한때 해외시장 점유율이 8.1%('12년)에 달하고 연간 해외건설 수주액이 660억불('14년)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었으나 이후 점유율 5%대, 수주액 300억불 수준으로 후퇴
  - '14년 전후 대량 수주된 사업들은 업체간 출혈 경쟁의 산물이었으며 상당수가 부실사업장으로 전락하여 이후 건설업체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글로벌 건설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투자개발형 발주가 증가하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중국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 및 기술격차 확보와 같은 산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

그림18 우리나라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림19 | 한국과 중국의 건설산업 글로벌 점유율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 **타업역 중 시장규모가 큰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전망**

- 종합건설업체들은 원가절감 및 품질 고급화 전략등을 목적으로 전문건설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하도급 규모가 큰 분야가 우선시될 전망
  - 시장규모가 크고 하도급 비중이 높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외에도 아파트 만족도와 직결되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창호공사업 등이 우선 진출 대상이 될 전망
- 전문건설업체는 신사업 진출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규모가 크고 공사 계통이 유사한 종합건설업과 토건 및 건축분야에 집중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
  - 종합건설업을 겸업하는 전문건설업체의 49.7%가 토건 및 건축업을 겸업 중
- 단,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체는 시장 인지도가 낮아 종합건설업 진출보다 계통이 유사한 다른 전문건설업역으로 확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

■ **자금력 및 기술력이 우수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전망**

- 건축물은 하자보수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건설사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업역규제가 철폐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타 영역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움
-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진출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들도 대형화할 가능성이 농후
  - 종합건설업체는 부족한 시공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M&A도 고려할 전망
  - 이 과정에서 기술력 등이 취약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도태가 불가피할 전망
- 전문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건설업에 진출할 수는 있으나 불명확한 책임소재로 인한 취약한 사후 관리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농후 **㉠**

표08 | 전문직별건설업 계약 현황(2019년 기준) (억원/%)

업종	계약실적		하도급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7,249	189,260	13.3	85.9
기계설비공사업	98,632	149,423	15.7	56.6
실내건축공사업	96,903	119,159	12.9	45.6
토공사업	27,942	93,238	32.9	87.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76,679	86,275	24.7	66.1
시설물	89,879	54,263	8.3	14.7
습식.방수공사업	22,704	45,194	40.0	74.7

자료: 한국전문건설협회

표09 | 종합건설업 공사 실적(2019년 기준)

구분	현황	비중(%)	
		공사실적(억원)	회사 수(개)
토건	공사실적(억원)	1,008,008	68.2
	회사 수(개)	3,047	21.5
토목	공사실적(억원)	26,227	1.8
	회사 수(개)	2,626	18.6
건축	공사실적(억원)	215,468	14.6
	회사 수(개)	6,637	46.9
산업설비	공사실적(억원)	207,251	14.0
	회사 수(개)	378	2.7
조경	공사실적(억원)	21,120	1.4
	회사 수(개)	1,457	10.3

주: 공사실적은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중 공사실적 합계액  
 자료: 대한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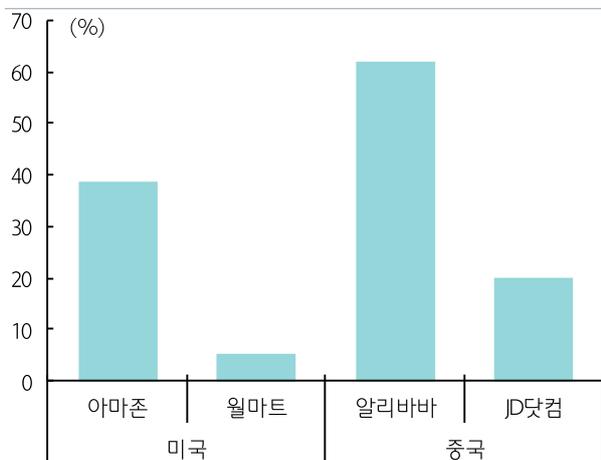
### G. 종합유통 :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과점화 가능성 대두

※ **Summary** :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최근 네이버, 쿠팡, 이베이 3사 위주의 과점화 가능성이 대두. 이커머스 경쟁력은 보유했으나 적자가 지속되었던 쿠팡이 최근 상장에 성공하면서 플랫폼 사업 확장이 예상됨. 네이버 또한 플랫폼 강점을 살리는 한편 협업을 통해 물류, 상품 등 이커머스 경쟁력을 확보. 또한 3위 이베이코리아의 매각이 진행 중으로 인수 업체는 상위 2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

※ **Comment** : 네이버, 쿠팡, 이베이 인수자 등 3사 과점에 따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중하위권 업체에 대한 보수적 접근과 함께 이커머스 업체의 상장 및 M&A 확대에 따른 영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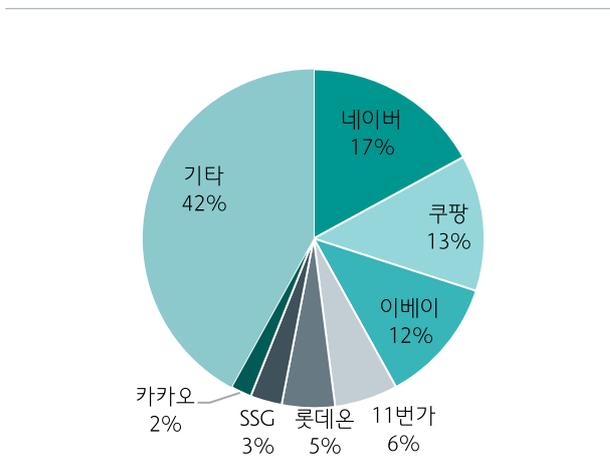
- 미국, 중국과 달리 지배적 사업자의 부재 하에 높은 경쟁 강도를 지속해왔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최근 네이버, 쿠팡, 이베이 등 상위 3사가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 미국과 중국의 경우, 각각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2위와의 큰 격차로 약 40~6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시장 구도를 형성
    - 양 사는 이커머스 지배력과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결제, 물류 등 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성장성 및 수익성을 향상
  - 반면,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파편화된 시장 구조 하에서 업체 간 가격 위주의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어 왔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 하에서 급성장 중인 네이버, 쿠팡과 과거 시장 1위였던 이베이를 포함한 3사가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상위권 형성
    - 네이버, 쿠팡, 이베이 등 상위 3사는 등은 최근 각각 협업, 상장, 매각 등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시장 구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그림20 | 미국,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 상위 2개 업체점유율



자료 : 각사, eMarketer, Wind, 삼성증권(2019년 거래액 기준)

그림21 | 국내 이커머스 업체별 거래액 비중



자료 : 교보증권, 카카오페이 증권(2020년 거래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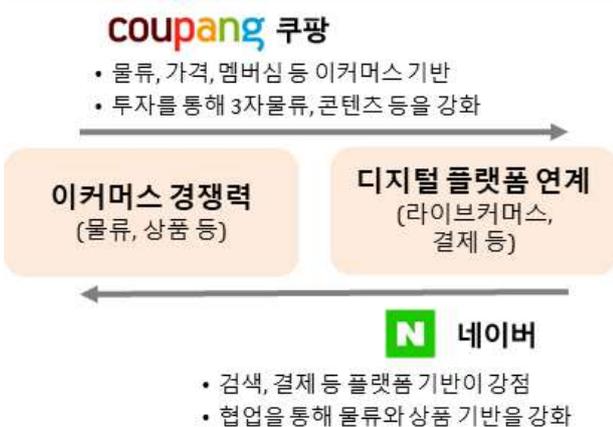
■ **쿠팡은 상장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3자 물류, 콘텐츠, 배달 등 플랫폼 사업 확장이 예상됨**

- 로켓배송 기반의 물류 경쟁력, 최저가 정책, 멤버십 도입 등으로 회원 수 및 매출액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쿠팡은 높은 판관비 부담으로 안정성 우려가 있었음
  - 직매입 위주의 매출 구조, 배송 인력 및 물류 센터 자체 보유 등으로 판관비 상승
  -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쿠팡의 누적 적자액은 약 3.7조원
- 2021년 3월, 쿠팡은 미국 증시에 공모가 기준 630억달러(약 71조원)로 상장하면서 46억달러(약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쿠팡은 그동안 지속해오던 물류 인프라를 더욱 보강하는 한편, 콘텐츠, 배달, 라이브 커머스 등 여타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
  - 물류 강화를 통해 아마존풀필먼트와 유사한 3자물류 서비스(로켓제휴) 확대 예상
  - 쿠팡플레이(콘텐츠), 쿠팡이즈(배달), 쿠팡라이브(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사업을 확대

■ **네이버는 플랫폼 강점을 살리는 한편 협업을 통해 물류, 상품 등 이커머스 경쟁력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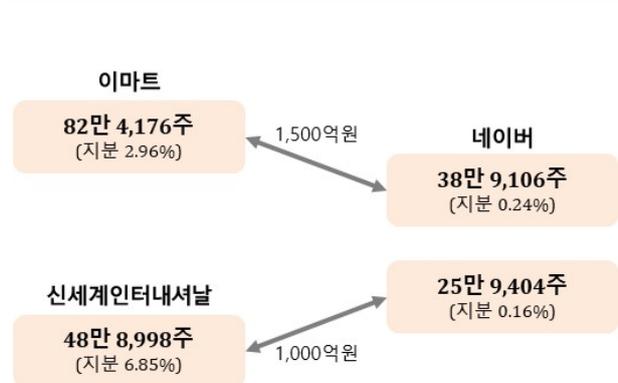
- 본업인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대 중인 쿠팡과 달리,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협업을 통한 물류, 상품 등 이커머스 경쟁력을 보강하는 중
- 검색을 통한 트래픽 유입, 간편 결제로 인한 구매 전환 유도, 최근 부상 중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진출 등으로 플랫폼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가 강점
- CJ대한통운(지분 교환), 물류 스타트업(지분 투자) 협업으로 물류를 강화해왔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최근 이마트, 신세계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 상품 경쟁력 향상
  - 네이버는 최근 이마트 지분 1,500억원,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분 1,000억원 취득(지분교환)

그림22 | 쿠팡과 네이버 이커머스 전략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3 | 네이버와 신세계 그룹의 지분 교환



자료 :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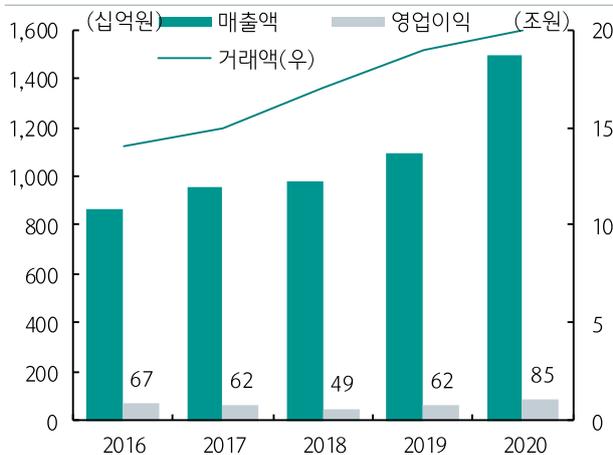
■ 네이버, 쿠팡이 중하위권 업체와 격차를 확대하는 가운데 3위 이베이코리아 매각이 진행 중

- 쿠팡과 네이버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중하위권 업체와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3위(점유율 12%) 업체인 이베이코리아 매각이 경쟁 구도에 변수로 작용
  - 올해 1월 매각 발표 당시 약 4~5조원의 높은 금액이 걸림돌이 되었으나, 거래액 규모가 유사한 쿠팡의 70조원 상장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수 업체가 참여
- 인수 참여 업체는 SKT, 롯데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가능한 SI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수할 경우 네이버, 쿠팡에 견줄만한 점유율을 확보하여 상위권 진입 가능
  - 또한, 매년 500~8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 추가로 온라인 사업의 수익성 개선도 가능
- 다만, 상위 2사 대비 미흡한 물류 및 플랫폼 기반, 4~5조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 마련의 부담, 인수 이후 그룹 통합의 어려움,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은 리스크 요인

■ 상위 3사의 과점 구도 고착화에 따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중하위권 업체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이커머스 업체의 상장 및 매각과 관련된 영업 기회 모색 필요

- 각각 미흡했던 이커머스 경쟁력과 플랫폼 기반을 확보 중인 네이버와 쿠팡, 그리고 3위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업체로 상위 3사 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과점 업체 외에 식품, 배달 등 일부 분야에 특화된 업체가 나머지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
- 일정 수준의 규모를 달성하지 못한 채 특화된 전문성 또한 부족한 중하위권 이커머스 사업자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필요
- 한편, 쿠팡 상장에 이어 이베이 매각까지 이루어진다면 언택트 트렌드로 가치가 상승한 관련 업체의 상장 및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어 IPO, 인수금융 등 기회 모색이 필요
  - 현재마켓컬리, 티몬 등의 상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요기요(배달)도 매각 검토 중 

그림24 | 이베이코리아 실적



자료 : 더벨(2020년 자료는 미국 본사 발표 기준)

표10 |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따른 업체별 영향

회사명	인수 성공 시 영향
SKT	- 오픈마켓 시장의 독점(지마켓, 옥션, 11번가) - 11번가 점유율 6%와 합산하면 국내 1위 거래액 차지 - 다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롯데	- 롯데ON 점유율 5%와 합산하여 네이버와 양강구도 형성 - 경쟁사(신세계)와의 점유율 격차 확대 - 그룹 문화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신세계	- 기존 오프라인 및 온라인(SSC닷컴)과의 시너지 추구 - B2C(백화점몰, 마트몰) 위주 구조에 오픈마켓 추가 -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 구축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음
MBK	-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운영 중이지만, 온라인 사업은 미흡 -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오프라인과의 시너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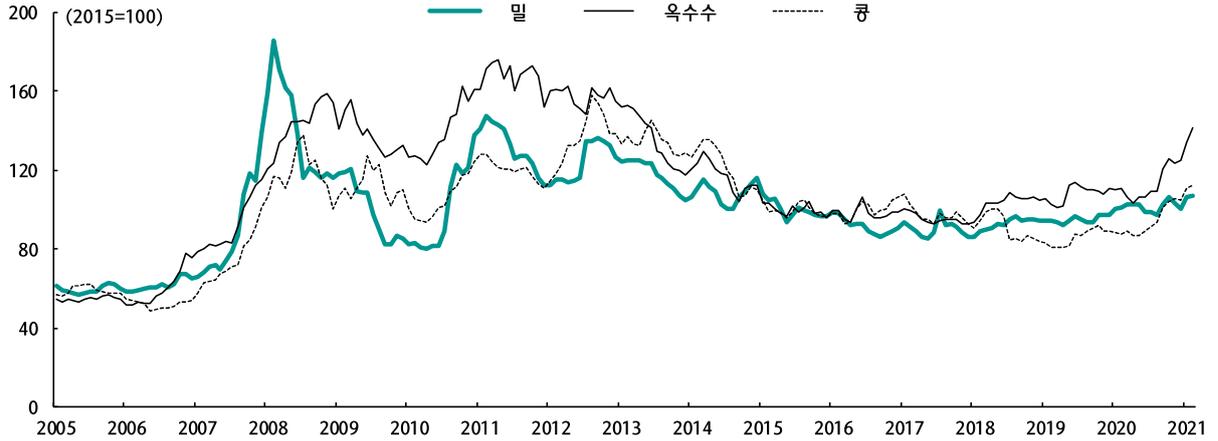
자료 : 각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산업별 주요 지표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5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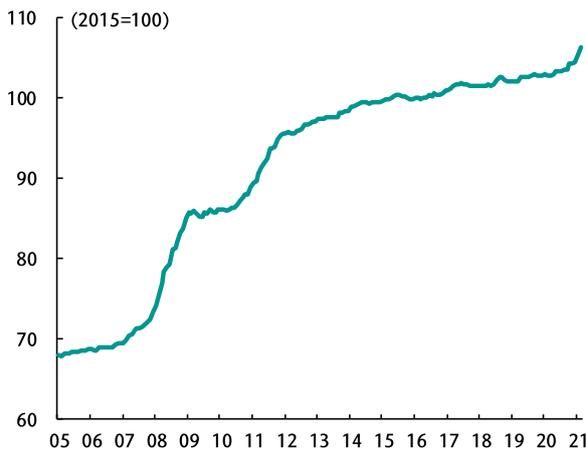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주요 생산지역의 작황 불안 및 중국의 수입 확대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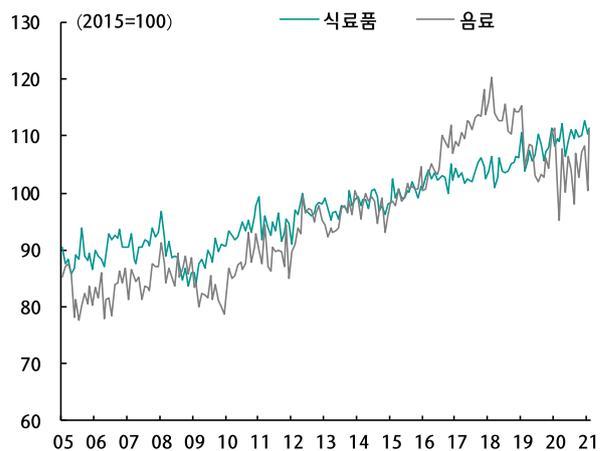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생산 및 물류 시스템 문제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 초 현재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및 중국의 수입 확대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향후 러시아의 수출세 부과, 라니냐 등에 따른 남미의 작황 상황(대두·옥수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이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옥수수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

**그림26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27 | 음식료품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식품업계 가격 인상 러쉬**

- 최근 식량작물 및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2021년 상반기 식품기업은 HMR 제품 위주로 제품가격을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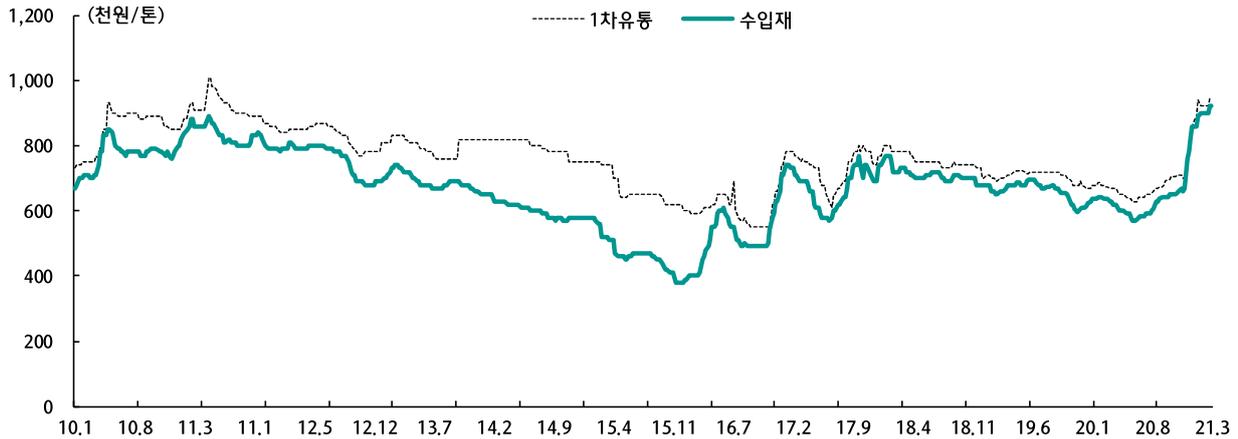
■ **2021년 들어 음식료품 출하지수가 상승**

- 2020년 하반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인 식료품과 음료 출하지수가 2021년 들어 상승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할향   둔화

그림28 |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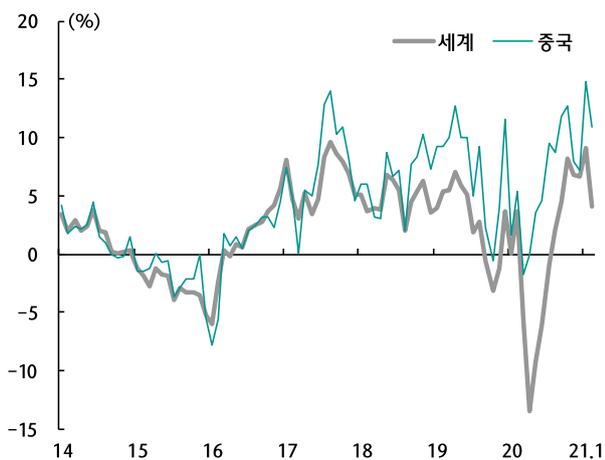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신문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 철강가격 상승 지속

- 2020년 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급락한 글로벌 철강가격이 중국시장을 시작으로 2분기 들어 상승 반전했고, 4분기 이후 원자재(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른 cost push 효과로 점진적으로 상승 중(2020년 중 철광석 가격 2배 상승)
- 국내 고로사(POSCO·현대제철)는 원가 부담을 이유로 2020년 10월 이후 출하되는 제품 가격을 인상(톤당 5만원)한데 이어 2021년 들어 1~3월 연속 제품 가격을 추가 인상 중(POSCO의 열연가격 인상: 1월 8만원/톤, 2월 10만원/톤, 3월 5만원/톤)

그림29 | 전 세계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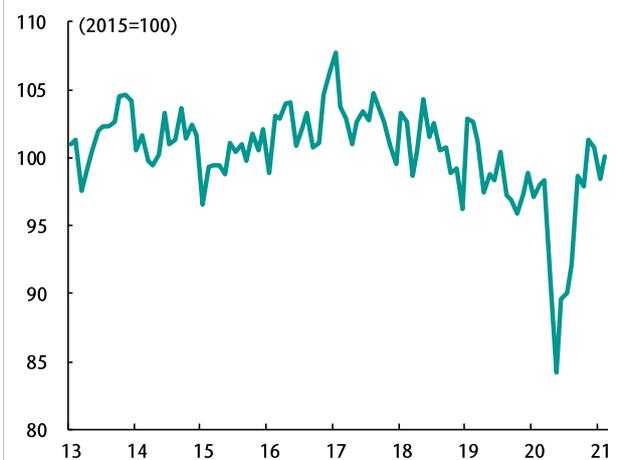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 2021년 2월 누계 전 세계 조강생산 6.6%(yoy)

- 2020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 조강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들어서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2월 누계 6.6%)

그림30 |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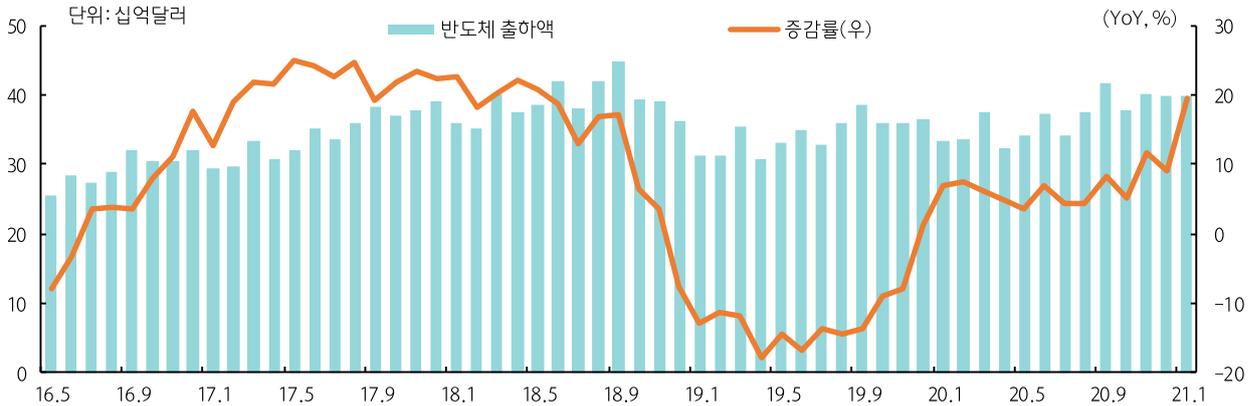
■ 상승 추세를 보인 출하지수의 변동성이 축소

- 2020년 6월 이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인 국내 금속 출하지수가 2021년 들어 안정되는 모습

반도체(C26)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1 | 전 세계 반도체 출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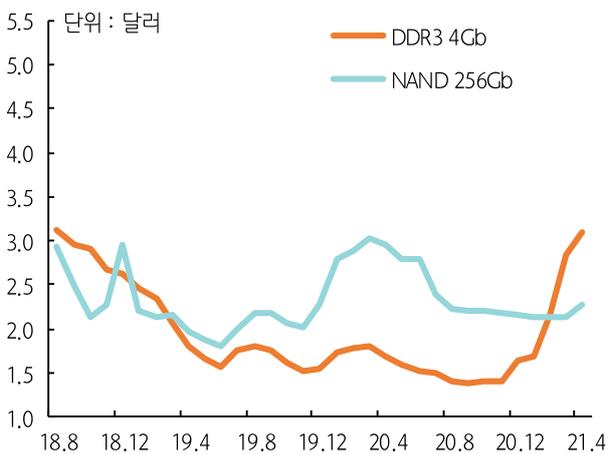


자료: WSTS

■ 반도체 품귀현상 우려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 급증

- 1월 세계 반도체 출하는 399억 달러로 19.5% 증가(YoY)하며, 메모리 호황기인 '18년 5월 이래 최고 상승률 달성
- 세계 반도체 출하 증가율(YoY, %): 5.1('20.10) → 11.6('20.11) → 9.0('20.12) → 19.5('21.01)
- 1월 지역별 출하 증가율(YoY, %): 8.1(북미), 6.7(유럽), 8.0(일본), 27.3(아시아)

그림32 | 메모리 가격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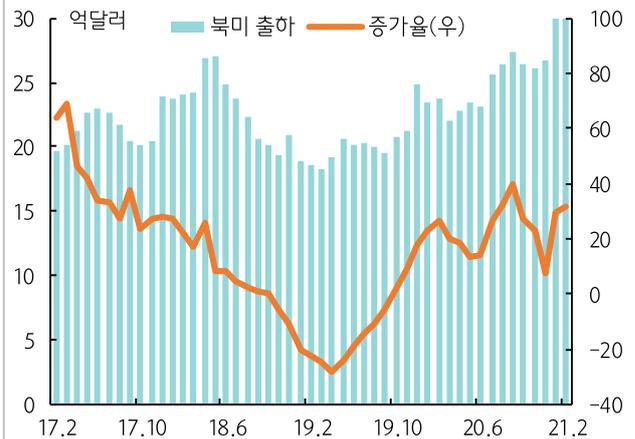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 D램 현물 가격, 3월 이후 급등 추세

- 공급 부족을 우려한 업체들의 D램 주문이 대폭 증가
-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전방 산업이 회복
-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와 달리 공급 Capex는 제한적인 관계로 향후 가격 상승도 지속될 전망

그림33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자료: SE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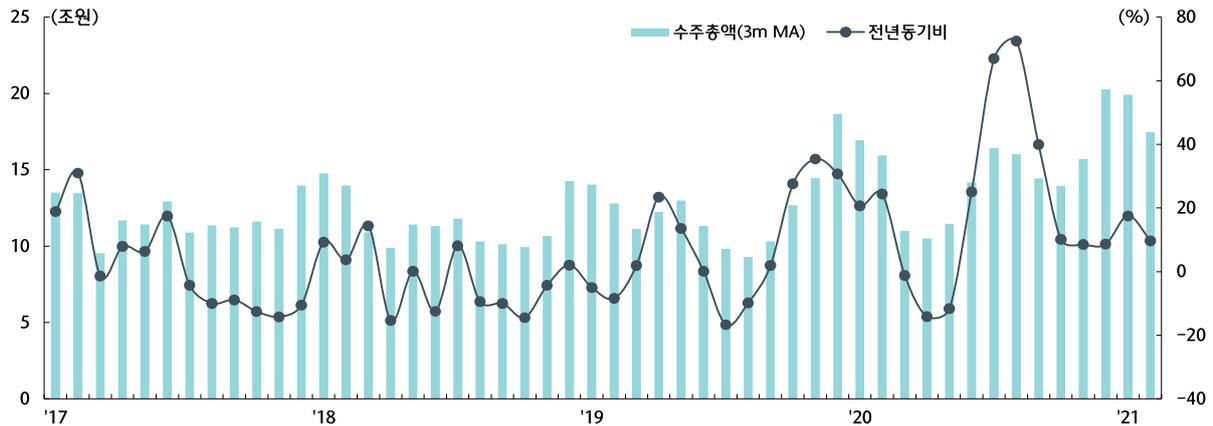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증가율, 성장세 지속

- 22월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성장세 지속(32.0%,YoY)
- 북미 장비 출하는 반도체 시장을 6개월 정도 선행
- '20년 12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고 성장을 전망

건설업(F)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4 | 건설사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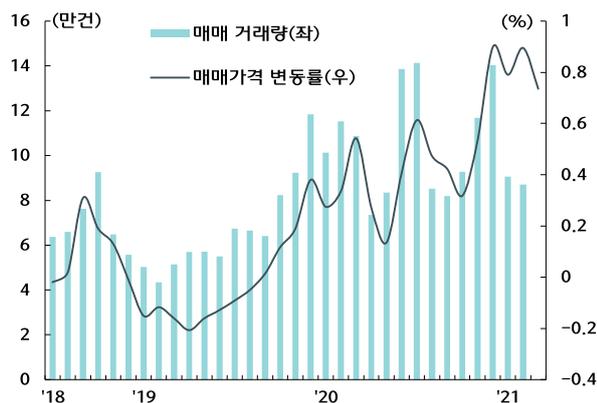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주택경기 활황 장기화에 힘입어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

- 정부의 주택수요 억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등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20년 이후 건설수주액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중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외에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 주도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건설 수주는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그림35 | 주택 매매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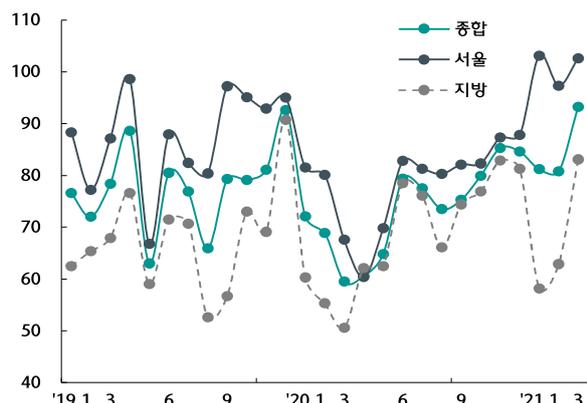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높아진 가격수준으로 매매거래는 크게 위축

- 주택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
- 다만, 높아진 가격수준, 통계적 반락 등의 원인으로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0%p 이상 감소

그림36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국에 걸쳐 건설사 체감경기는 양호한 편

- 주택시장 장기 활황에 따라 수도권 외 지방에까지 건설사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
- 특히, 지방 미분양이 1만호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택분양 경기가 크게 호전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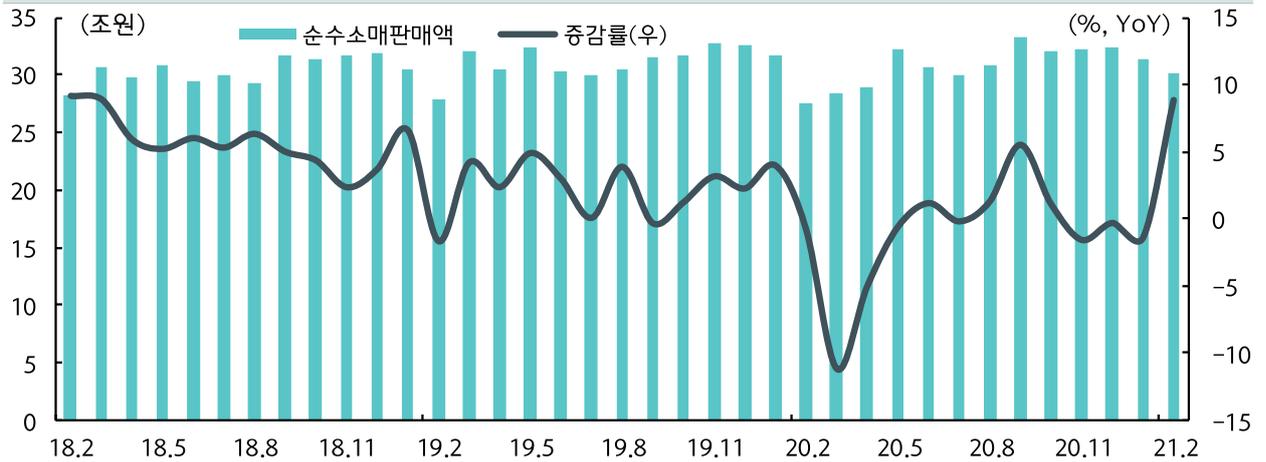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7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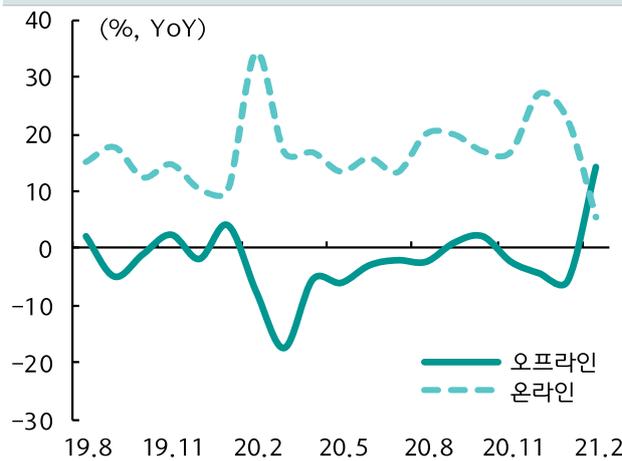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월, 명절 효과와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은 전년도와의 설 명절 시기 차이(설날 : 20년 1.25, 21년 2.12)에 따른 명절 매출 증가와 전년도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2020년 2월 전년동월대비 8.9% 증가

그림38 |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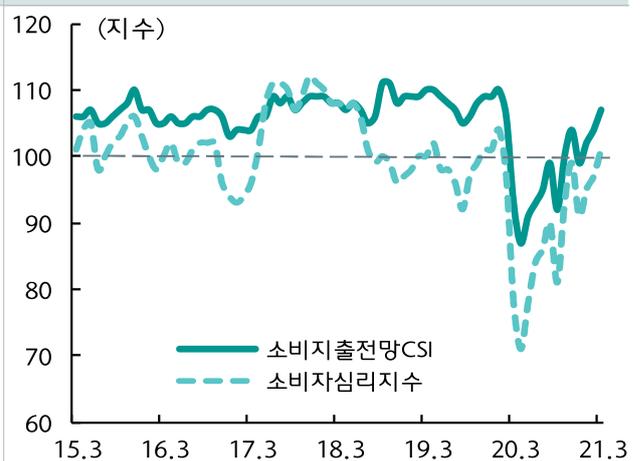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월, 온·오프라인 성장세 역전 현상이 나타남

- 2월, 지속적인 침체를 보여 왔던 오프라인은 명절 선물 판매 증대와 김영란법 완화 등으로 YoY 14.3% 성장
- 온라인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전년도 호황의 역기저효과에 따라 성장률 둔화

그림39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 소비 심리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코로나19 진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101을 기록
- 소비지출전망CSI도 전월대비 3p 상승한 107 기록

##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02-2002-2683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